2019년 2학기부터 드디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작됩니다!

초·중·고 교육의 국가책임 완성! 1인당 학비 연 160만원 경감

정부·교육청·지자체가 함께 고등학교 교육까지 책임집니다!



교육부



고교무상교육은?

추진 목적

-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
-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격차에 따른 사회적 격차 해소

시행방안

- 보다 많은 학생들이 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9년 2학기 고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1년 완성

대상 학교

-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제외학교: 입학금 ·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고교 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지원항목

-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시행 시기 별 세부내용

-

시행 시기	2019년 2학기	2020년*	2021년~
적용 학년	3학년	2·3학년	全 학년
대상 인원 (예상)	49만명	88만명	126만명

* 2020년부터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고교 무상교육 시행

Q 형편이 어려운 사람부터 우선 지원해야 하지 않나요? 경제적 사정이 넉넉한 가구까지 교육비를 무상으로 지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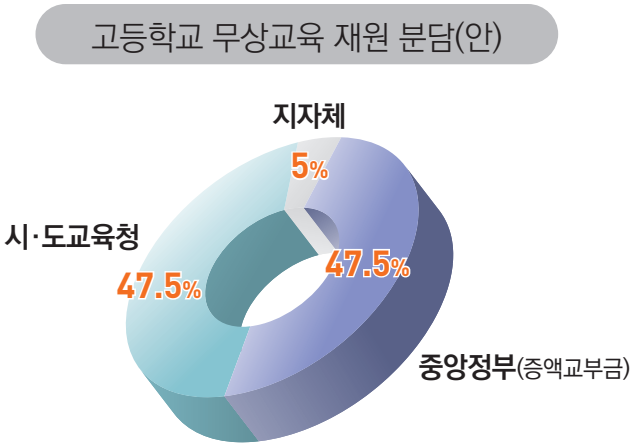


초·중·고 공평한 교육 기회 부여

그간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저소득층과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은 이미 학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고교 진학이 보편화 된 상황에서 가정환경 · 지역 ·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려면 대규모 예산이 소요된다는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나요?



- 그간 국회, 재정당국, 시·도교육청 등이 긴밀히 협력하여 논의를 지속한 결과 **재원 확보 방안을 합의**하여 지난 4월 9일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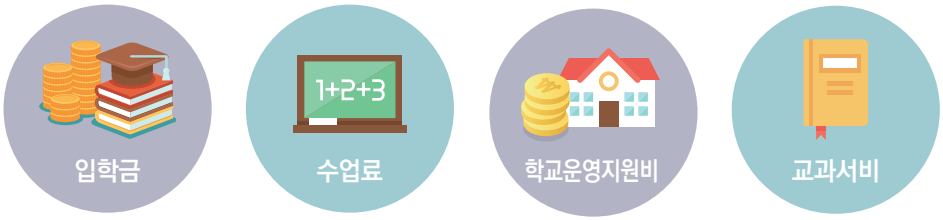
  2019년 2학기는 시 · 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추경 편성하여 실시합니다.

Q 결국 세금 올리고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하여 **세금을 올릴 계획은 없고,** 현재의 재원 안에서 예산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Q 고교무상교육으로 교육의 질이 낮아지지 않을까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 학습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지원



- **무상교육과 교육의 질은 별개**입니다. 중학교 의무·무상교육 완성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 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 · 교과서비 등 **고등학교 학습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지원**입니다.

  - 중학교 의무 · 무상교육 완성(2004)
    수학 · 과학 성취도 국제비교 연구(TIMSS) 결과 : (1999~2003) 2~5위, (2007~2015) 1~4위

Q 자사고, 특목고 등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 아닌가요?

- 특정 유형의 학교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초·중학교 무상교육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입학금 ·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를 제외한 것입니다.

  - 이들 학교는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운영됨이 원칙이며, 해당 학교 진학은 학생 · 학부모의 선택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Q 왜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나요?

고교무상교육 (2019년 2학기)	현재 고3 2001년생	현재 고2 2002년생	현재 고1 2003년생	현재 중3 2004년생	현재 중2 2005년생	혜택을 받는 총 인원
고1학년부터 시행시	✕ 혜택없음	✕ 혜택없음	○ 44만명	○ 43만명	○ 39만명	126만명 (3개 학년)
고3학년부터 시행시	○ 49만명	○ 44만명	○ 44만명	○ 43만명	○ 39만명	219만명 (5개 학년)

-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3학년 학생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 고3부터 시행하면 총 219만명이 혜택을 받는 데 반해, 고1부터 시행하면 126만명만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 또한 고1부터 시행하게 되면 1학년 후배들이 수업료 부담 없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고2 및 고3 학생들은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졸업하게 되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Q 고교무상교육 시행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는데 시행에는 문제가 없나요?

- 고교 무상교육 관련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학생 · 학부모, 국민들께서 고교 무상교육에 거는 기대가 크신 만큼,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조속히 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Q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누가, 언제부터,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 **2019년 2학기 고3 학생**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고2·3 학생**이, **2021년부터는 전체 고등학생**이 학비부담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됩니다.
-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초 · 중학교 무상교육 범위와 동일하게 4개 항목을 지원받게 됩니다.

Q 가계 교육비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어, 가계 소득이 실질적으로 **월 13만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교생을 자녀로 두고 있는 서민가구에 많은 도움이 되고, 교육격차에 따른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기준 월 16시간 근로소득

Q 실제로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되나요?

- 고교 무상교육으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분들은 그간 고교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의 서민가구**들입니다.

  이미 저소득층에는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등학교 학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여전히 고교 학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수가 1만5000여명(2017년)이나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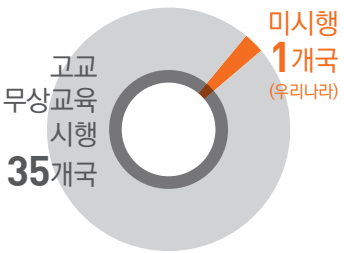
고교 무상교육
왜 해야 하나요?

고교 진학률 ('18, KE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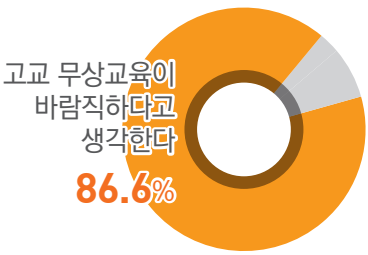


고교 진학률
99.7%

OECD국가(36개국) 시행 현황



설문조사 결과 ('17.12, 여론조사)



- 고교 진학률이 99.7%로 보편화 단계에 있고, 고교 무상교육 찬성 비율이 86.6%에 달하는 등,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국민적 기대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35개 모든 국가에서 시행하는 상황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 우리 나라의 경제적 성장에 걸맞은 교육복지 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통해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부

주소: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34)
일반번호: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교육부 민원콜센터: 02-6222-6060